

‘傾向’과 ‘新傾向派’의 거리

曹 南 鉉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서 론

傾向 또는 傾向性은 일제 식민통치 하의 우리문학의 존재와 가치를 밝히는데 있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중심개념의 하나다. 경향성의 개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이른바 ‘新傾向派文學’과 ‘傾向文學’ 사이의 거리를 헤아리는 것은 최소 192, 30년대의 한국문학의 사상적 底層을 이해하는 그 선결작업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傾向性은 민중, 프로문학, 轉向, 이데올로기, 리얼리즘 등과 같은 우리 근대문학의 중심개념들을 본질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는 窓의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 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다룬 것이든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을 대상으로 한 기왕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통념이나 인습적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 내고 있다. 우선, 신경향파문학이란 말이 무반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을 지적할 수 있다. 朴英熙가 일종의 자기도취에 빠져 비평가적 안목에서 만들어 낸 이 말은 그후 金八峯, 林和, 金南天 등의 추인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문예사조를 가리키는 버젓한 문학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新’을 강조한 것인지 ‘傾向’을 역설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 지시성이 약하다.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의 무반성적, 무비판적 사용은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을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마구 혼용하는 현상을 빚어 내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향성 또는 경향문학 그 자체도 모호하고 다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경향문학과 신경향파문학을 결코 동질적이거나 同位的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林和나 金南天은 경향문학을 신경향파문학의 包攝概念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향문학을 신경향파문학의 包攝概念으로 굳힐 경우, 경향문학과 여타 문학적 경향 사이의 변별성이 아주 옹색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와 해석을 남겼던 林和 자신도 명료하면서 객관적인 규정에 닿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경향문학의 외연과 내포는 아직도 불분명하게 잠혀 있는 실정이다. 경향문학을 白潮派 소멸에서 30년대 후반에 전향소설이 나올때까지 사이에 사회주의에 편을 든 문학을 총괄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신경향파문학은 사실성 불필요한 용어가 되기 쉽다. 아니면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되어 왔던 ‘경향’이 다른 말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특히 신경향파문학에 대한 통념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신경향파문학을 과도기의 현상, 준비단계, 지향적 성격이 강한 것 등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그 용어가 적절한 것이든 부적절한 것이든 신경향파문학도 엄연한 하나의 독립된 그리고 自足的인 현상이나 유파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신경향파문학은 프로문학의 맹아라든가 카프문학의 예고편이라든가 하는 준비설 내지 지향설이 굳어지다 보면 프로문학이나 카프를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필연적이면서도 당위적인 현상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꼭 자의로만 그랬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林和는 신경향파문학의 위치를 격상시켜 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경향문학 또는 프로문학의 의의를 다소나마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는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 사이에는 분명히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여 경향, 신경향파문학, 경향문학 등의 용어가 나타나고, 보편화되고, 意味化된 배경을 살펴 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任鼎宰, 朴英熙, 金八峯, 林和, 金南天 등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답을 들리 주고 있는 글들을 남기고 있다.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 그 위상과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 내는 작업은 한국현대문학사를 균형을 갖춘 시각에서 구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1. '傾向' 과 '新傾向派' 의 유래

傾向詩, 傾向劇, 傾向小說, 傾向文學(tendency literature, Tendenzdichtung), 傾向藝術 등에서의 傾向은 시적 경향, 문학적 경향, 예술적 경향이라고 했을 때의 傾向과 같은 뜻으로 묶을 수 없다. 후자가 조류, 추세, 사조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비해 전자는 심리적, 윤리적, 사상적, 미적 경향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향은 차라리 傾向性이라는 말로 불러야 할 것이다. 전자에서 대체로 경향성은 예술과 문학양식의 반영대상이 되고 있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문학이나 예술이 일정한 경향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후자의 경향이 통계를 내어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라면 전자의 경향성은 용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에 크게 좌우된 그 결과일 수도 있다. 루카치는 19세기 전반에 유럽에서 '신동적 경향'(seditious tendency)이란 한 실례처럼 법률·경찰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던 '경향성'이나 '경향직'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또 언제부터 미학용어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¹⁾ 이 말은 당시의 검열지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경향성이나 경향직이란 말은 혁명이나 개조를 도모하는 세력에 대해 경계심을 지닌 기존 지배세력이 사전에 포착한 의도, 징후, 성향 등을

1) Georg Lukács, *Essays on Realism*, ed. by Rodney Livingstone, trans. by David Fernbach (M.I.T Press, 1971) p.33,

원의로 삼고 있다. 원래 이 말은 19세기 유럽에서는 행정당국이 안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920년대 한국의 사정을 보면 반체제 세력의 단합과 확대를 꾀한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감 없이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게 된다. 경향이니 신경향파니 경향적이니 하는 말이 급속하게 보편화되었던 1920년대 그 당시의 우리의 일반 논설과 문학평론에서는 법률·경찰용어로서의 경향성의 原義를 확인할 수 없다. 1920년대의 식자나 논객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이 말은 투쟁의지나 진보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사용되었던 것이다.

任鼎宰, 朴英熙, 金八峯보다 앞서 다소 불확실한 대로 경향성의 개념에 눈을 뗀 것으로 金舜觀의 「社會問題와 中心思想」을 주목할 만하다. 이 논설은 일차 대질을 치른 이후로 전 세계에 일대 개조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워 주면서 그 운동의 골자는 ‘사람사람의 사상·감정·신념·욕구 즉 意識的 傾向을 새롭게 하는 것’²⁾에 있다고 풀이했다. 金舜觀의 논설의 후반부는 ‘心的 傾向’이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하고 신기한 말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이 强者階級과 弱者階級の 各各 特有한 心的 傾向을 現在社會의 經濟組織에 反射하여 思考할 것 같으면 强者階級の 心的傾向은 資本階級の 階級的 意識이라 할 터이요, 弱者階級の 心的傾向은 勞働階級の 階級的 意識이라 할 터이다. (중략) 强者와 弱者的 兩階級的 階級的 意識이라는 것이 결단코 이무 根抵의 實在가 없이 空中에서 落下하거나 또는 地下에서 湧出한 것이 아니라 當然히 그러한 心的 傾向이 發生될 수 있을 만큼 이의 社會組織이 長成한 것이니, 요컨대 奴隸의 意識은 主人이라는 環境을 떠나서 思考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無產階級的 意識도 亦是 有產階級이라는 社會的 事實을 떠나서 그것을 思考키 不可能하리라고 斷言 한다.³⁾

이상의 글은 사회조직이나 사회적 사실은 계급의식을 낳고 이 계급의식은 한 개인의 심적 경향의 핵심이라는 논리에 서 있다. 심적 경향은 곧 계급의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주장은 朴英熙 또는 金八峯이 경향성이란 말과 개념에 가장 먼저 눈을 뗀다는 통설을 일단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대의 문사들을 향해 생활을 찾고, 계급의식에 충실하고 또 민중에 다가 갈 것을 호소했던 任鼎宰의 그 유명한 평론 「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은 ‘傾向藝術’이니 ‘傾向運動’이니 하는 말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그 뜻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점에서도 충분히 자료적 가치가 있다.

在來의 畫소와 藝術學上으로는 傾向藝術을 倫理, 敎會, 宮殿, 藝術 등으로 分析하고 藝術의 價値를 完全하게 보지 안이하였다. 또한 現代의 畫소와 藝術學者들은 階級藝術即社會主義藝術을 在來傾向藝術部內에 含해가지고 藝術의 價値가 업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畫소와의學究의 必然的過程으로 享樂의 學問의 所産이고 이 現代의傾向이라는 것은 生活意識에 在한 思想의 結論과 人間社會生活過程에서 必然的進路이다. 現今政治에 在한 傾向運動으로 文藝와 造形美術方面을 總括해서 말하면 新

2) 『新生活』 7호, 1922.7, p. 40.

3) 위의 책, pp. 45-46.

浪漫主義表現藝術, 다다主義, 形而上派, 原始派, 立體派, 印象派, 新古典派, 等外에 少少한 潮流가 있겠으나 代表的傾向으로는 如此한 運動이 國際적으로 分割하고 있다. 그런데 朝鮮의 潮流가 있다고 엘쎌 밀하던 小峯소악의 自由主義의 意識과 思想이 混血된 것이 있겠다고 하겠다. 또한 階級生活에 藝術運動은 現今全國無產者의 손으로 運動하고 있다.⁴⁾

任鼎宰는 브르조아예술과 경향예술을 대립관계로 파악했으며 경향예술을 계급예술과 사회주의예술의 總括概念으로 이해하였다. 또 ‘傾向運動’은 소브르조아 자유주의운동과 계급운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20세기 초의 각종 예술사조들을 ‘傾向運動’이라는 말로 묶어 버린 것에서 경향성에 대해 任鼎宰가 아직은 확실한 개념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임을 짐작케 된다. 그럼에도, 경향예술의 의연과 내포를 본격적인 문학이론가가 아닌 입장에서 가장 먼저 설명했다는 기록은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任鼎宰는 경향문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은 ‘時代意識과 階級意識에 自我를 確立시킬 것은 朝鮮文士의 急迫한 問題’⁵⁾임을 역설한 데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 쓰인 ‘傾向’들은 모두 ‘傾向性’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文化社一派的 세키단의 傾向’, ‘文人會一派的 세나리슴의 傾向’, ‘中間階級的 思想傾向’ 등과 같은 표현이 보이고 있거니와 이때의 傾向은 성향이나 조류와 같은 말을 바꾸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경향성이나 경향문학이니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金舜觀과 任鼎宰는 계급의식 또는 사회주의사상을 경향의 속뜻으로 밝혀 놓음으로써 경향성의 原義에 근접한 결과가 된다. 任鼎宰의 글이 발표되었을 그 무렵 「思想과 傾向」⁶⁾이라는 제목 아래 小峯 金起田이 쓴 글이 보인다. 이 글은 金海에서 농민들이 사회주의 청년회를 공격한 사건, 大田에 있는 소년회들의 동향, 전도교청년당 조직과정 등을 기사문의 형식으로 소개한 것으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경향이란 말에 대한 밀다른 해명은 찾아 볼 수 없다. 金舜觀, 任鼎宰 양인이 암시한 것처럼 ‘경향’을 계급의식에의 傾斜 또는 사회주의 사상에의 感應 정도로 놓고 볼 때 朴英熙의 신조어 ‘新傾向派’가 첫선을 보인 1925년 바로 그 2,3년 전에 이미 경향적이라고 이름할 만한 현상이나 세력이 나타났던 것임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경향문학이나 경향파라는 이름이 들어 가야 할 자리에 신경향파문학 또는 신경향파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신조어가 대신 들어 앉게 된 것이다.

‘新傾向派文學’은 朴英熙가 새로 만들어 낸 용어임을 가장 확실하게 추인해 준 것은 金八峯이었다. 우선, 그는 「十年間 朝鮮文藝 變遷過程」(『朝鮮日報』, 1929. 1. 1~2. 2)이란 글에서 1925년모에 朴英熙의 「戰鬪」, 「산양개」, 李益相의 「狂亂」, 李箕永의 「가난한 사람들」, 朱耀燮의 「殺人」, 崔曙海의 「饑餓와 殺戮」 등과 같은 일군의 새로운 경향의 소설들이 출현

4) 『開關』, 1923. 9, p. 30.

5) 위의 책, p. 31.

6) 『開關』, 1923. 9, pp. 127-128.

했다고 지적한 다음, 이들 소설들을 ‘신경향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묶은 이는 바로 朴英熙라고 밝혀 놓았다.

이 제작품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1)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들의 ‘현실’이요 (2) 그러한 이들과 부유한 생활을 하는 계급과의 ‘대조’이요 (3) 또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극단의 증오감을 갖고 필경에는 그 열정이 (중략) 혹은 하지 못하고서 자포자기하여 광인이 되든지 하는 ‘사건’이요 (4) 또는 집편을 통하여서 (중략) 불합리를 통격하고 그 불합리의 (중략) 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작자의 ‘정신’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향을 맨 먼저 지적하고 이 경향의 통일을 꾀하고 이 경향을 운동의 형태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은 박영희씨이다. 씨도 1925년 12월호 『개벽』 잡지에서 이 경향을 ‘신경향파’라고 명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⁷⁾

이 글에서 金八峯이 이해하고 있었던 ‘傾向’은 傾向性보다는 성향, 조류, 움직임 등의 의미에 가깝다. ‘新傾向派’란 말은 전문적인 문학용어로 인정하려 한데 반해 ‘傾向’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金八峯이 현실의 직접적지, 빈부의 대조적 묘사, 극적결말, 현실적 모순의 인식과 고발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새로운 경향의 내용을 제시한 것은 경향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긴 한다.

8.15 해방 이후에 金八峯은 여러 지면을 통해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과거 문단활동에 대한 회고담을 쓴 바 있다. 그는 「나의 회고록」이란 장문의 글을 『世代』에 1964년 7월호에서 1966년 1월호까지에 걸쳐 연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는 朴英熙가 고안해 내어 쓰기 시작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국 문학사에서 반드시 한번은 고찰되고 넘어가야 하는 신경향파 문학이런 용어는 회월 박영희의 창작이었는데 불행히 지금 나에게 그 증빙 자료가 없을 뿐, 회월의 창작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1923년 겨울에 『개벽』 잡지에 내가 발표한 단편 「붉은 쥐」, 그 다음에 1924년 봄에 역시 『개벽』에 발표했다가 잡지를 전부 압수당해버린 단편 「트릭」, 최학송의 「기아와 실욕」, 이기영의 「오남매를 둔 이비지」 등…… 종래의 우리 문단에서 보지 못하던 무산자의 궁핍한 생활성과 그들의 저주에 가까운 반항과 복수를 테마로 한 작품들이 인덜야 나타나는 문학 경향을 지적해서 회월이 명명한 용어이었다. (중략) 말하자면 종래의 소설과 다른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세거시 본다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재래의 현실에 반항하고서 방화와 살육으로 복수를 한다는 자인 발생적 무산 계급 의식을 고취 묘사했다는 뜻이었다. 사실 말이지 이 같은 경향의 소설은 그 전까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경향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의식·사상을 표출시킨 그때의 작품들이다 믿일 회월이 ‘신경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비로 ‘프로 문학’이라고 불렀더라면 우리 문학사에 ‘신경향파 문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아니했을는지도 모른다.⁸⁾

金八峯은 「나의 회고록」에 와서는 앞서 거론한 「十年間 朝鮮文藝 變遷過程」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진술을 꾀하고 있다. 「나의 회고록」에서는 뒷 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7) 홍정신 편, 金八峯文學全集Ⅱ(文學과 知性社, 1988), p. 40.

8) 위의 책, p. 197.

이 朴英熙가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쓴 데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 ‘신경향’이나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신경향파문학이란 말은 프로문학으로 대치되어어도 무방하다는 암시가 들어 있기도 하다. 「붉은 쥐」, 「트릭」과 같은 자기의 소설을 신경향파소설의 모델로 끼워 넣으려 한 것도 20년대의 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점이다. 金八峯은 「나의 회고록」에서도 여전히 ‘傾向’을 전문적인 미학용어나 문학용어로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그럼에도 그는 ‘무산자의 반항·복수’, ‘무산계급의식’ 등과 같은 경향성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특징들을 예리하게 이끌어 내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傾向性(tendency, Tendenz)에 대해 말은 몰랐으며 그 개념은 잘 이해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신경향파란 말은 경향의 전문용어로서의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경향파는 새로운 사조를 피하는 세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新’을 군더더기로 보면서 경향성을 주장하는 유파로 풀이할 수도 있다. 좀더 줄여 말하자면 신경향파는 新思潮라는 뜻과 傾向性이라는 의미가 겹쳐진 것이 된다. 朴英熙가 신경향파란 용어를 어떤 의미로 안출해 낸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미 金八峯도 주목한 바 있던 평론 「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의 地位」(『開關』, 1925. 12)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 ‘今年는 文壇에 있어서 새로운 첫기름을 시작하였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글에서 朴英熙는 ‘생활을 위한 문학’ ‘無産의 朝鮮을 解放하기 위한 문학’의 건설에 힘쓰자는 주장을 서두에 깔아 놓았다. 이어 그는 1924, 5년경의 대표작으로 金八峯의 「붉은 쥐」, 趙明熙의 「생숙으로」, 李箕永의 「가난한 사람들」, 李益相의 「狂亂」, 朱耀燮의 「殺人」, 崔鶴松의 「饑餓와 殺戮」, 李相和의 시 「街相」 그리고 자신의 소설 「戰鬪」 등을 꼽고 난 다음 이 작품들이 ‘傾向을 띄어 준 것은 事實’⁹⁾이라고 하였다. 朴英熙는 이들 작품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새로운 경향을 읽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作品들이 모다 無産階級文學으로써 完成된 作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나뉠만이 할 말이 아니라 作者自身도 할말인줄로 안다. 다만 프르즈와 文學의 傳統과 典型에서 버서나와서 새로운 傾向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은 自信있게 할 소리인줄로 안다.

一般으로 그 創作의 內面을 보면 遊蕩을쳐나고 情緒至上을 쳐나고 壓迫과 搾取的氣分을쳐나 生活에, 思索에, 解放에, 民衆으로 나아오려고하는 새로운 傾向은 前無한 新現象이라고 안이할 수 없다.¹⁰⁾

朴英熙에 의하면 ‘새로운 傾向’은 무산계급문학을 도달점으로 삼으면서 프르즈아문학, 자연주의, 낭만주의 등에서 벗어 나 생활·사색·해방·민중을 위한 문학 쪽으로 나아 온 것을 뜻한다. 그는 ‘新傾向派 反面에는 역시 프르즈와文學이 서서있다’는 말로 신경향파 문학의 문단적 위치를 확정지었으며 ‘無産階級에 有用한 文學을 建設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

9) 『開關』, 1925. 12, p. 4.

10) 위의 책, p. 4.

라는 말로 신경향파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밝혀 놓았다.¹¹⁾ 이렇듯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부정해야 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과 지향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 놓은 것을 보면 ‘新傾向派’에 들어 있는 ‘傾向’은 단순히 성향, 조류, 징후 등의 유사어로만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傾向性’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朴英熙는 이 글을 다 끝내고 나서 다음과 같은 附記를 달아 놓았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朴英熙가 경향을 경향성으로 이해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新傾向派라는 말은 各各 作品에 나타난 色彩를 綜合的으로 代表한 말이며 所謂 말하는 消極的 黨派가 안인 것을 말하여 둔다.¹²⁾

朴英熙는 자신이 고안해 낸 말이 오해될 수도 있음을 알아 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향파는 범문단적인 현상을 가리킨 것인 만큼 백조파나 퇴폐파와 같은 일개 유파로 좁혀 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이미 朴英熙는 신경향파란 용어에 대해 백 프로 만족해했던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金八峯은 60년대 말까부터는 신경향파란 용어를 가장 먼저 썼다든지 20년대의 신경향파문학을 주도했다든가 하는 기록을 슬며시 자기 것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가령, 「20년대의 문인들」이라는 제목으로 東亞日報에 1968. 6. 8~6. 29에 걸쳐 연재한 회고담에서 金八峯은 불과 몇년 전의 「나의 회고록」(『世代』, 1964. 7~1966. 1)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바를 스스로 뒤엎는 결과를 보인다.

이같이 수필 형식으로 문인들의 양심에 호소한 뒤에 1924년 11월에 나는 「붉은 쥐」(단편)를 내놓았다. 아마 신경향의 최초의 작품인 게다. 회월의 「사냥개」, 귀시래의 「기아와 살육」, 주요섭의 「살인」 등은 모두 그 후에 나온 것이다.

‘신경향’이라는 용어도 1925년 7월 『개벽』지의 문예월평에서 내가 처음 사용한 용어였다. 「살인」과 「기아와 살육」을 평하고자 “살인·자살을 그린다는 것은 살인·자살을 유지하는 원인을 그린다는 것이요, 경향이라 말함은 그 원인을 그리는 점에 있어서의 경향을 말함이다. 그러면 근래의 문단에는 적개심과 분노와 진쟁명적 반역과 울분과 비판과 염세를 그리어내는 한 개의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같이 지극한 뒤로 분노·반역·살인·자살 등으로 향기하는 작품을 모조리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불리었다.¹³⁾

金八峯은 자신의 단편 「붉은 쥐」가 신경향 최초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신경향이라는 용어는 朴英熙보다 몇 개월 앞서 자기가 제일 먼저 쓴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 보았다. 그는 「20년대의 문인들」 직후에 쓴 「문단교류기」(『大韓日報』, 1969. 6. 12~7. 3)에서는 아예 1925년 7월호 開闢에 실렸던 「文壇 最近의 一傾向」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신경향파라는 용어는 이 글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이른다. 그는 曙海 崔鶴松과의

11) 위의 책, p. 5.

12) 위의 책, p. 5.

13) 홍경선 편, 앞의 책, p. 318.

교유를 회고하는 자리에서 1925년 6월호 朝鮮文壇에 실린 曙海의 「飢餓와 殺戮」을 평하는 과정에서 신경향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 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的 地位」(『開關』, 1925. 12)에다 신경향파란 용어의 출처를 두었던 종래의 태도를 고쳐 5개월 앞서 발표되었던 자신의 평문 「文壇 最近의 一傾向」에서 신경향이란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이 글에서 金八峯은 朱耀燮의 「殺人」, 崔曙海의 「飢餓와 殺戮」 등과 같이 주인공을 살인이나 자살로 몰고 가는 구성방법이 일종의 문단적 유행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표현방법상의 경향은 의식상의 경향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아간 바 있다.

내가 이와가리殺人이나自殺을하는것을그리여내는것을 한테슴쳐서 한개의傾向이라고불는에는 單只主人公이 죽는다든가, 그리치아니하면 다른사람을죽인다든가하는單純한事實이 一致된다는것만을가지고말하는것이아니라, 그와가티죽인다든가, 죽는다든가하게멘드는理由가그것이 서로共通되는性質의것임을가라치말하는것이다. (중략) 그러면, 殺人을한다든가 自殺을한다든가 하는主題를벗잡고서創作을한다는傾向은곳지금말한바와가티 이두가지事實을構成하는必然的條件上에一致되는傾向을가짓다는것이된다. 다시말하면 殺人, 自殺을그린다는것은 殺人自殺을誘致하는原因을그린다는것이요, 傾向이라말함은即ち 「原因」을그리는點에 있어서시의傾向을가라치말함이다.

그러면 近來의文壇에는 敵忌心과憤怒와全生命의叛逆과鬱憤과悲觀과厭世를그리여내는한개의傾向이 있다고말할수이다. 그리고이것은事實이다.¹⁴⁾

주인공을 살인이나 자살로 몰아가는 결말처리방법 상의 경향 더 나아가서 창작방법 상의 경향은 결국 1920년대 전반기의 조선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적개심·분노·반역·울분·비판 등의 심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은 경향의 개념을 깊이 있게 인식한 그 소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金八峯은 1924, 5년 당시 주목할 만한 경향 한 가지를 제시하는 선에서 더 나아 가지 못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朴英熙만큼 경향을 경향성으로 이해하려 한 흔적도 남기지 못하였다. 朴英熙가 새로운 경향은 범문단적인 각성이나 사명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한데 비해 金八峯은 아직은 한 개의 유파나 사조 정도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金八峯은 ‘신경향파’와 같은 말은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20년대의 문인들」이나 「문단교류기」 같은 60년대 말에 쓴 회고담에서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와 개념에 대해 자신을 최초로 선구자라고 한 金八峯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에 관계 없이 경향성의 개념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인식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미 金八峯은 朴英熙에게 한 걸음 뒤쳐진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비록 金八峯은 경향의 개념을 사진적 의미에서 전문적인 미학용어나 문학용어로 바꾸어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아 가지는 못했으나 앞의 「나의 회고록」에서와 같이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의 부적절함과 불필요성을 슬며시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여러 의미를 지시하

14) 『開關』, 1925. 7, pp. 124-125.

려는 욕심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2. 傾向文學과 新傾向派文學의 거리

(1) 朴英熙와 金南天의 견해

신경향파문학이란 말이 20년대 문사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었고 카프 결성에 이어 프로문학, 무산파 문학, 계급문학 등의 용어가 이의 발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다. 1927년까지도 朴英熙는 신경향파문학이란 말에 대해 백 프로의 자신감을 갖지는 못했다. 그는 1927년 초에 발표한 평론 「新傾向派文學과 無產派의 文學」에서 ‘由來의 非社會的 文學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社會的 傾向을 가지고 創作이 始作되는 所謂「新傾向派文學」¹⁵⁾ 이라고 조심스럽게 전제한 다음 신경향파문학의 위상과 기능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朴英熙가 이제 신경향파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에서 있었다는 점이다.

新傾向派文學은 어떠한 完全한 體系를 具有한 獨立된 文學이 아니라 將次 어떠한 目的의 意識으로 體系를 세우기 위하여지만 必要한 그 過程에 있어서의 한 必然한 現象의 文學이기에 새 문이다. 그러므로서 新傾向派는 그의 目的하는 境地에 나가게 되면 곧 그 自體가 解體되며 崩壞되고 말것이다. 다만 新傾向派文學이란 社會的 文學을 建設함에 將次 進行을 더하게 해야 할 方向을 指示할 責任이다. 그러나 「프르즈와」 評者들은 이 過程에 있어서 流動變遷할 新傾向派文學을 너무도 過重視하고 그 根據의 薄弱함을 嘲笑한다. 그러나 新興文學이란 新傾向派文學에 머크코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그 時代의 社會는 舊 새로운 時代를 產出시킴으로 社會의 進化를 圖하는 것이나 같다. 더욱이 文學上 新傾向派는 眞正한 新興文學을 建設함에 한 準備의 過程임을 다시 말하여 둔다.¹⁶⁾

신경향파문학과 그 작가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었던 1년여 전의 평론 「新傾向派文學과 그 文壇的 地位」에서와는 너무도 달리 또 너무 빠르다 싶게 朴英熙는 신경향파문학의 과도기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新傾向派는 그의 目的하는 境地에 나가게 되면 곧 그 自體가 解體되며 崩壞되고 말것’이라는 진술이 잘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신경향파문학은 진정한 新興文學을 지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문학이라는 것이다. 신경향파문학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현상으로 그 자체로는 독립된 성격이나 체계를 지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朴英熙는 초기 신경향파의 인생관내지 사회관은 허무적·개인적·절망적·감정적인 수준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색채들은 성장적·집단적·사회적·투쟁적인 성격으로 해소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⁷⁾ 결론적으로 신경향파문학은 무산파문학 또는 무산계급문학 쪽으로 해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朴英熙는 계속 신

15) 『朝鮮之光』, 1927. 2, p. 57.

16) 위의 책, p. 57.

17) 위의 책, pp. 59-61.

경향파문학이란 용어를 고집해서 쓰긴 했지만, 그 위상이나 기능을 보면 실제로는 ‘경향문학’을 논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마도 그는 신경향파문학에 대해 준비설이나 저항설로 성격화하면서 신경향파란 용어의 부직질함을 속으로는 자인했을지도 모른다.

신경향파 또는 신경향파문학이란 말은 朴英熙, 金八峯, 林和, 金南天 등의 손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프로문학의 바로 전단계를 가리키는 문학사적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朴英熙는 해방 이후에 소개된 「初創期的 文壇側面史」, 「현대한국문학사」와 같은 문학사 형태의 글에서는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을 병용하긴 했지만, 2, 30년대에 발표한 평론에서는 신경향파문학 한 가지만을 썼다. 이에 반해 林和나 金南天은 처음부터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두 용어를 병용해 왔다. 「모던文藝辭典」이라는 큰 제목 아래서 金南天은 ‘傾向文學’과 ‘新傾向派文學’이라는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려서 설명한 바 있다.

★傾向文學 요즘 써워지는 傾向文學이라는 말은 至極히 曖昧한 뜻으로 使用되는것같다. 用者에 따라서는 概念限定을 없이하고, 一種의 便宜의인 指稱으로 쓰는분조차 있지않은것같다. 卽, 二十三四年代以後의 新傾向派文學을 이렇게 불으는이도 있고, 그뒤를繼承한 普罗文學을 新興文學이러던가 또는 傾向文學이라 불으는이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普罗藝術家의 團體이었던 『카프』에 所屬되었거나 또는 周邊으로 돌아다니던 作家의 그뒤(『카프』解散後)의 作品까지도 이렇게 불리버리는 畵단이 없지않다. 그러므로 使用된 處所에따라, 上記의 어느것을 表示하기 爲하여 쓰인것인지 그 「뉴앙스」를 讀者는 하나 하나 살펴볼 必要가 있게되었다. (중략) 將次로는 새로운 國民主義의文學또는, 生産文學같은것이 傾向文學이리고 불리위질 可能性도 있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면 一層 더 尤甚하여지는 混亂을 預키어려울것이다.¹⁸⁾

★新傾向派文學 (생략) 白潮의 否定과 正當한 史的繼承에 依하여 新傾向派는 擽頭하였다. 二十三年頃에는 金基鎮의 『今日의 文學과 明日의文學』 『크리르테運動의紹介』 등이 朴英熙의 『朝鮮을지내는 뒤나쓰』라는 論文等과 함께 그의 主張을 代辯하면서 『開闢』等誌面에 나타났다. 이들 主張의要旨는 藝術과 生活의 不可分의 關聯과 生活의現實에의 藝術의從屬을 粗雜하나 強烈한 口調로 외친것이였다. 이러한 文學, 藝術上의 新傾向은 社會思想史와 相應하는 諸社會條件 밑에 發生한것임에 틀림없으나 이들의 가장 重要한 活動은 啓蒙的인 批評活動으로 朝鮮에 批評이 樹立된것은 이時期에 비롯한다. 그러나 他方 다른 領域의 功績도 相當하여, 새로운 樣式에 依한 寫實主義文學의 綜合的인 發展도 括目할만한것이 있었다. 曙海 崔鶴松은 代表的作家로 그뒤를 잇는 『카프』十年, 乃至는朝鮮레아리즘文學의 하나의 傳統을 이루어놓았다.¹⁹⁾

金南天의 설명에 의하면, 1920년대와 30년대에 경향문학은 신경향파문학의 별명, 프로문학의 별칭, 카프작가와 동반자작가가 쓴 문학의 총칭 등과 같이 대략 세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향문학은 모호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경향문학을 좀더 확대해석할 경우 경향문학에는 轉向文學미저 포함될 수 있다. 경향성 또는 경향문학의 외연은 어떤 문학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 판단하였느냐에 따라

18) 『人文評論』, 1940. 1, pp. 114-115.

19) 위의 책, pp. 115-116.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가령, 1925년 당시 계급문학의 문제에 대해 ‘경향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파라는 것이 작자와 작품을 지배하는 鑄型이 아닌 이상 작자가 어떤 주의라든지 경향에 구속될 수는 없다’²⁰⁾고 하면서 비판적 입장에 선 廉想涉 같은 사람은 경향문학의 범위를 넓게 잡기 쉽다. 이에 반해 ‘階級文學이란 본질적으로 傾向問題요, 결코 皮相的 題材問題가 아니라’²¹⁾고 한 金八峯 같은 사람은 경향문학으로서의 성립요건을 분명 까다롭게 규정해 놓았을 것이다. 루카치도 「경향성이나 당파성이나」(1932) 하는 글에서 경향성 또는 경향문학이 매우 多樣的인 용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다시 경향성은 매우 ‘상대적인’ 용어라고 하면서 문학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경향성에 대한 개념규정이 내용을 달리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증하기도 하였다. 루카치는 경향문학은 진보적 브르즈와문학의 잔재다, 브르즈와문학론자들은 지배세력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작품들을 경향적이라고 부른다, 브르즈와계급의 문학유파들은 상호간에 보다 진보적인 세력을 경향적이라고 비난한다,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대상을 묘사하면 그것이 곧 경향적이다, 경향예술은 곧잘 비예술적인 것, 예술적대적인 것(hostile-to-art) 등과 같은 비난을 받는다, 미성숙한 프로문학(the young proletarian literature)은 적대계급이 자기에게 모욕적으로 갖다 붙인 경향성을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하기도 한다 등등과 같은 견해들²²⁾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보면 傾向文學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金南天이 고민하고 혼란을 느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新傾向派文學에 대한 金南天의 管見은 朴英熙·金八峯과는 달리 오히려 냉정하며 싱거운 편에 속한다. 金南天의 생각은 신경향파문학은 白潮派 중심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 신경향파문학은 당시의 사회사상사적 추이를 반영한 것, 신경향파문학의 가장 큰 공으로는 리얼리즘의 종합과 발전을 들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2) 林和의 논리

林和는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이란 용어를 분명히 가리서 쓴 대표적인 논객이었다. 192, 30년대의 문학지 논객들 중에서 실제로 林和만큼 신경향파문학의 형성배경, 문헌사적 위치, 전개과정 등을 세밀하게 파헤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30년대 후반에 들면서 경향문학의 성격과 특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인 평론을 여러 편 써 내기도 했다. 과연 林和는 경향문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① 『프롤레타리아 레일리즘』으로부터 비롯하여 辯證法的寫實主義 『쏘시알리즘의 레일리즘』等等 여러번재 우리는 『레일리즘』論과 邂逅하였다.

이러한現象은 傾向文學이 『레일리즘』과 떠날수없다는 證左일뿐 아니라 보다 重要한것은 『레일리

20) 廉想涉,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開闢』, 1925. 2, p. 52.

21) 金八峯, 파두성이 된 프로문학의 素日, 『開闢』, 1925. 2, p. 44.

22) Georg Lukács, 앞의 책, p. 35.

증』論議變遷過程의 各段階가 文學의發展의 複雜한 過程을 反映하고 있다는 것이다.

周知와같이 『쏘시알이즘의레알이즘』까지에 各發展階段은 朝鮮傾向文學의 寫實的藝術로서의 自己 完成의 過程이 있을뿐만 아니라 實로 黨派的 文學으로서의 成長過程을 具體的으로 表示하는 各階段이었다. (중략)

이過程에는 傾向文學의 上昇運動이 아니라, 그停滯, 混沌, 後退의 渦狀運動이 表現되어 있다.²³⁾
「寫實主義의 再認識」(1937)

- ② 그렇다고 傾向文學은 單純히思想의 一點에서만 그前代에 文學에 比하여 優秀하였는가 하면 많은 反傾向派論者들이 이런 見解를 述했음에 不拘하고 傾向文學은 明白히 鮮朝文學의 藝術의 進歩上 巨大한 功獻을 끼친것이다.

그러므로, 今日의 藝術派라고 부를 傾向의 得勢가 傾向派가 無視했던 文學의 藝術性을 重視했기 때문에 의례히 今日의 地位를 獲得했는가 하면 그것은 또한 皮相의인 見解라 아니할수 없다. (중략)

傾向派의 全盛時代에 藝術은 思想이 아니라 藝術 그自身이리고 固執하는 사람이 더 藝術家이어서 그대거나, 傾向派의 凋落과 藝術主義의 得勢가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藝術主義의 時勢를 豫測한 先見의 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는다면 두가지가 다 어리석기 比할데 없는일이다.²⁴⁾

「文壇의인 文學의 時代」(1938)

- ③ 우리는 이런點에서 泰俊(그는 二五年以後의 非傾向文學이 나온 가장 큰作家)을 볼때 形式的 部分的인 進歩를 認定하면서도 構造, 性格, 全體의 『폼포지슌』에 있어 春園 想涉에 미치지 못함을 斷言할수가 있다. 軟弱하게 洗鍊된 春園이나 想涉의 傳統이 泰俊의 小說이라 할수있다.

이런意味에서 傾向文學, 民村이나 雪野는 文章이나 形式에 눈에 띄우는 進歩라하는것은 볼수없다 하더라도 『스케일』의 雄大, 構造의 強固, 性格의 確實性이 있어 春園과 想涉의 훨씬 前方에 進出한 이들이라 할수있다. (중략)

이런 意味에서 眞正으로 個性이기엔 多分히 封建的인 新文學, 또한 個性의이기보다는 지나치게 集團的인 傾向文學은, 決局朝鮮에 小說樣式을 完成할수없었다.²⁵⁾

「本格小說論」(1938)

- ④ 一言으로 概括하면 지금에 있어 傾向小說이나 純文學系의 小說이나를 勿論하고 먼저 말한 性格과 環境과를 統一시키지 撇어나갈 條件이 不備한 結果로 小說들이 卍態描寫, 心理省察로 分裂되어 現代文學에 對한 가장 큰 要求로써 이分裂의 左右間의 統一을 要望하게 되었다.²⁶⁾

「通俗小說論」(1938)

위에서 ①은 경향문학은 리얼리즘을 핵심으로 삼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조선 경향문학에게도 궁극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 보인다. 또한 경향성은 당파성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를 일러주고 있으며 조선 경향문학이 그간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음도 잘 암시하고 있다. 특히 ‘朝鮮傾向文學의……黨派的 文學으로서의 成長過程’과 같은 대목을 통해서도 경향성이나 경향문학에 대해 林和가 핵심을 찌르는 인식에 도달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은 林和처럼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향성(Tendenz)은 곧 당파성(Parteilichkeit)이라는 등식을 받아 들이

23) 林和, 文學의 論理, 學藝社, 1940, pp.70-71.

24) 위의 책, pp.261-262.

25) 위의 책, pp.374-375.

26) 위의 책, p.398.

고 있거니와 앞서 거론한 루카치의 글 「경향성이나 당파성이나」도 두 개념 사이의 관계는 리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결국 루카치는 경향성과 당파성을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태도에는 반대했다. 기본적으로 경향성을 주관적이며 다의적인 개념으로 파악했던 만큼, 루카치는 현실의 객관적 형상화를 염두에 둔 마당에서는 경향성보다는 당파성에게 더 큰 신뢰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헤어베크, 프라일리히라트 등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경향성과 당파성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밝힐 수 있었다.

당파성은 경향성과는 달리 현실의 제현과 형상화에 있어서 객관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당파성은 진정한—비증법적—객관성에 대한 전제이다. 경향성에서는 어떤 것을 편드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념적 숭배(idealistic glorification)를 뜻하며 어떤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것의 파괴나 왜곡을 의미하게 된다. (중략) 당파성에서는 진체과정의 인식과 형상화가 이 진체과정의 진정한 추진력이 집약된 총체성으로서 또 진체과정의 밑바닥에 깔린 비증법적 모순들(the dialectical contradictions)을 끊임없이 고상하게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진체과정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입장을 취한다.²⁷⁾

루카치는 경향성과 당파성의 거리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 내리는 의도에서 ‘超黨派性’(‘above party’ attitude, Überparteilichkeit)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다. 경향성보다 당파성을 더욱 발전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루카치의 입장은 黨性(partinost)을 일어야 경향성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경향성을 전문적·실제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黨性이라고 주장한 레닌주의자들의 입장과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향성과 당파성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우르스 예기(Urs Jaeggi)처럼²⁸⁾ 루카치의 견해를 약간 고쳐서 ‘경향성은 작가가 현실에 맞서 따로 설정한 하나의 도덕적 범주(eine moralische Kategorie)요 당위요 이상’이라고 하면서 당파성에 대해서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命名化’(die Benennung der historischen Entwicklungsprozesse)로 특징을 요약한 것도 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조선 경향문학의 도달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林和도 경향성은 당파성이나 당성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앞의 인용문 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林和는 1930년대의 문단을 경향파와 예술파로 이분해 놓고 있다. 그는 예술파라고 해서 경향파보다 꼭 예술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 보이고 있다. 오히려 그는 경향문학이 예술성을 지키고 발전시킨 공이 있다고 주장하여 경향문학에 대한 ‘미예술적’, ‘예술적대적’ 운운의 통상적인 비난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④에서 경향소설과 純粹學系를 대립관계로 놓고 있는 것도 ②와 동일한 발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에서는 非傾向文學이란 말을 써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林和가 1925년에서 향후 십여년 간의 조선 문단의 세력을 경향문학과 비경향문학으로 대별

27) Georg Lukács. 앞의 책, p.42.

28) Urs Jaeggi, Literatur und Politik, Suhrkamp Verlag, 1972, p.93.

해서 본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된다. ③에서 李泰俊은 비경향문학을, 李箕永과 韓雪野는 경향문학을 대표하는 존재로 기술되고 있다. 경향파/예술파를 설정한 ②번, 경향문학/비경향문학의 이분법을 암시한 ③번, 경향소설/순문학계의 내립관계를 내 보인 ④번을 종합해 보면, 林和는 신경향파문학 이후 최소한 카프해산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향문학 또는 경향파라는 이름으로 묶여지는 작가들이 문단의 양대 세력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예술파, 순문학계, 비경향문학 등 여러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林和는 경향문학을 더 크고 확실한 세력 또는 아예 테제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향문학의 범위 확정이란 문제에 있어 林和도 앞에서 金南天이 우려했던 것과 같은 恣意性과 模糊性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①~④에서 각각 암시된 경향문학의 범위가 조금씩 성이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①과 ③은 경향문학에는 프로문학이나 카프문학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되고 있으나 ①이 경향문학의 기점을 신경향파문학시대까지 끌어 내릴 수 있다고 암시한 반면 ③에서는 카프가 결성된 1925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 사실상 ②에서는 경향파가 인제쯤 시작되어 인제쯤 끝난 것인지를 짐작할 길이 없다. ④에서의 경향소설은 ④가 들어 있는 평론이 씌어진 시기나 전후 문맥을 보면 1930년대 중반 전후에 발표된 이른바 轉向小說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林和는 몇년 후(1940년) 金南天이 경향문학의 가능한 의미로 제시한 세 가지 즉 신경향파문학의 별명, 프로문학의 별칭, 카프작가·동반자작가가 쓴 문학의 총칭 등의 의미를 가림 없이 받아 들였고 고루 다 긍정적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林和는 경향문학의 범위를 신경향파문학에서 전향문학까지를 포괄하는 식으로 확대해서 쓰기도 했고 반대로 카프소속 작가들의 문학으로 좁게 잡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경향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짓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 명료하면서도 객관적인 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경향성, 경향문학 등의 용어와 개념을 안출해 낸 나라나 문학권에서도 이에 대한 모범답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잠깐 논한 바와 같이 경향성을 당파성 또는 당성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향성을 超時代性(Überzeitlichkeit)이나 無時代性(Zeitlosigkeit)의 탈대개념으로 놓고 보는 선에서 만족해 하는 느슨한 입장도 있다. 이런 입장은 경향예술은 순수예술과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밝히는 선에서 논의를 마치기 쉽다. 또 경향성은 리얼리즘의 태도나 현실참여정신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언명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들은 경향성의 본질적 성격을 밝혀 내는 일에 사실상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이미 경향적이라는 말 자체에 '의도적' '편파적' '지향적' 등과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상, 경향성은 동적 개념으로 운명지어진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향성을 순수성이나 초월성의 반

대어로 파악한다든가 참여성이나 현실주의의 동질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든가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경향성을 고정된 현상이나 정적인 개념으로만 본 데서 나온 결과다. 경향성이 어디까지나 동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경향성은 그 논자의 문학적 체험의 내용, 역사인식, 사회적 전망 등에 따라 다른 내용과 빛깔을 지니고 나타난다는 의미가 된다. 엥겔스만 하더라도 경향소설(Tendenzroman)은 곧 진짜 사회주의 소설²⁹⁾이라고 했는가 하면 경향성을 다소 소심한 반정부 정신을 표현한 작품등에서 확인하기도 하였다.³⁰⁾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향소설’(der sozialistische Tendenzroman)의 입부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사회주의 경향소설은 현실적 조건의 충실한 묘사를 통해 그 조건에 대한 지배적인 인습적 환상을 깨버리고, 부르조아 세계의 낙관주의를 뒤흔들어 버린다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당파를 분명하게 따르지 않고서도 그 소명을 완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³¹⁾

사회주의적 경향소설이란 말에서 사회주의적이란 수식어를 빼버리고 경향소설만 남겨 놓고 보아도 용어에 비해 내용이 부드러움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하기는 엥겔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인지는 헤아릴 수 없다.

林和가 경향성 또는 경향문학에 대해 어떠한 기본인식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신경향파문학을 그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朝鮮新文學史論 序說』(『朝鮮中央日報』 1935. 10. 7~1935. 11. 13), 『小説文學의二十年』(『東亞日報』, 1940. 4. 12~1940. 4. 20) 등 여러 문학사 형태의 글에서 신경향파문학에 대해 당시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날카롭고 깊이 있는 해석을 남겼다.

① 신경향파문학의 형성과정 가운데서 당면한 저항이란 조선의 신문학사상 최초의 심각하고 또 본질적인 상극의 표현 그것이다. 위선(爲先) 신경향은 현존한 문학 전부를 그 적으로서 가졌었다. 출판류의 낡은 이상주의도 상섭, 동인의 자연주의, 세기말적 테카당스 모두가 신시대의 문학적 표현자의 출발을 방해하려 하였다.

즉 이제까지 무질서 혼돈 무방향적 현상 가운데 있던 ‘신문학’은 그 수습된 통일적 방향으로 한 개 적대자를 택한 것이다.³²⁾

② 그러나 신경향파 가운데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두가지의 조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는 김기진 박영희로부터 송영, 김영팔 등에 이르는 주관의식의 강렬한 경향으로 그 조류는 신흥한 계급의식을 내용으로 하였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으나 제일적으로 『백조』적 분위기를 가운데를 관류하던 낭만적 주관주의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들에 있어서는 표현하려는 욕구가 항상 작품의 전면에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최서해, 이기영 등의 작가에 있어선 분명히 동인으로부터 상섭에 이르는 조선 자연주의

29) 김영기 옮김, 마르크스엥겔스의 문학예술론, 논장, 1989, p. 89.

30) 위의 책, p. 421.

31) Urs Jaeggi, 앞의 책, p. 95.

32) 『朝鮮中央日報』, 1935. 11. 3.

의 영향이 압도주의적이었다. 누구보다도 이 두 작가는 자연주의의 품 안에서 생탄 성장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관의 표현보다도 대상의 묘사가 작품의 주(主) 모티브가 되어 있었다.³³⁾

- ③ 신경향파 문학의 루즈한 형태를 벗어나 명확한 경향문학으로 자기를 정비할 시기다. 그러나 결국 조명희는 박영희적 경향의 하나 언장에 불과하였다. 단지 그 소설이 독자의 심령(心靈)에 울린 것은 영탄적인 그의 시정(詩情)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애록을 지은 작품은 역시 한설야의 「파도기」다. 이 작품은 현실에서 분열된 관념과 관념에서 떨어진 묘사의 세계를 단일한 메카니즘 가운데 형성하려고 한 최초의 작품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신경향파 시대와 근본에서는 같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층 명백한 경향적인 정신이다.³⁴⁾

林和는 朴英熙, 金八峯의 평론과 소설 그리고 崔曙海의 소설 등이 신경향파시대를 열어 놓았다는 점에 대해선 의의를 달지 않았다. 위의 ①, ②에서 잘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林和는 신경향파문학에게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①에서는 신경향파문학을 ‘지향’의 문학 또는 ‘적대감’의 문학이라고 암시한 다음, 신경향파문학은 그 이전에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었던 여러 사조들 또는 문학적 경향들을 일단 통합해 놓은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고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후 신경향파문학은 ②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朴英熙, 宋影, 金永八 류의 낭만적 경향과 崔曙海, 李箕永 류의 자연주의적 경향으로 분화되었다. ①이 신경향파문학이 나타나게 된 사상적 배경을 일러 준 것이라면 ③은 신경향파문학이 프로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한 계기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경향파문학을 프로문학으로 끌어 올린 작품으로 林和는 韓雪野의 「過渡期」를 주목한 것이다. ③에서 특별히 음미해야 할 것은 신경향파문학이 ‘명확한 경향문학으로 자기를 정비하여’ 또 ‘일층 명백한 경향적인 정신’에 의해 프로문학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경향파문학은 경향성이 강화되면서 또 경향문학의 색채가 가미되면서 자기해체와 자기극복의 길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林和의 논리를 일단 수긍하면서 경향문학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고 경향성의 조건을 느슨하게 잡을 경우, 신경향파문학은 자연스럽게 경향문학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林和는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를 창안해 내었으며 그 시대를 앞서서 일었던 朴英熙가 정작 신경향파문학을 진정한 신흥문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엄연한 하나의 사조요 유파로 평가했다. 이는 신경향파문학을 경향문학 혹은 프로문학을 지향한 것으로만 보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결 론

傾向에는 성향, 추세, 사조, 의도 등의 사전적·통상적 의미와 흔히 경향적, 경향성으로 표현되는 미학이나 문학의 전문용어로서의 의미가 들어 있다. 金霽觀의 「社會問題와 中心

33) 『東亞日報』, 1940. 4. 12.

34) 『東亞日報』, 1940. 4. 20.

思想](1922)이란 논설은 어느 정도 후자의 의미를 인식하는 가운데 경향이란 말과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任鼎宰는 평론「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1923)에서 경향예술과 경향운동이란 말을 처음으로 써 보였다. 그러나 경향운동은 문예운동을 바꾸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金壽觀과 任鼎宰가 애써 소개했던 경향, 경향예술 등의 용어는 朴英熙가 명명한 신경향파 또는 신경향파문학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다.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는 새로운 문학적 유파라는 뜻과 傾向性의 의미를 교묘하게 합성해 놓은 것이었다.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와 그 실제 내용은 朴英熙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가장 확실하게 추인한 사람은 바로 金八峯과 林和였다. 그런데 金八峯은 60년대 말에 쓴 회고담 형태의 글에서 신경향이란 말을 가장 먼저 쓴 것은 자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金八峯이 朴英熙보다 몇 개월 앞서 쓴 평론에서 경향이란 말을 썼던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傾向性의 개념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金八峯이 朴英熙에게 분명하게 뒤졌다는 데 있다. 朴英熙는 실제로 신경향파시대가 끝나 버린 그 무렵 신경향파문학은 무산파문학을 예비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 그것으로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평론「신경향파문학과 무산파의 문학」(1927)을 써 내기도 했다. 朴英熙는 신경향파문학이란 용어나 신경향파문학의 위상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했던 듯하다. 金南天은 신경향파문학과 경향문학을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했다. 그는 경향문학이 논자에 따라 그 意味域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金南天은 혹 林和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林和는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 경향문학의 범위를 달리 잡은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林和는 특히 朴英熙와는 달리 신경향파문학의 위치를 한층 격상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신경향파문학을 하나의 독립된 또 자족적인 사조나 유파로 보고자 했다.

林和나 金南天처럼 경향문학과 신경향파문학을 완전히 갈라 놓고 볼 수 있다면 굳이 경향이란 말을 짚어 넣어 신경향파와 같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朴英熙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 들여 신경향파문학을 프로문학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이해할 경우, 신경향파문학은 가령 경향문학 제 1기와 같은 표현으로 대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향성을 현실참여적 태도나 민중성이나 리얼리즘 정도로 해석하여 경향문학이 포괄하는 범위를 한껏 넓혀 볼 경우 신경향파문학에서 전향문학까지의 시기는 경향문학 제 1기, 제 2기……하는 식으로 구체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향성을 당파성 쪽으로만 연결지어 경향문학의 범위를 아주 까다롭고도 좁게 설정할 경우, 경향문학은 카프 주도의 프로문학 그 바로 앞 시기와 바로 뒷시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동반자문학이나 전향문학에도 아직은 경향성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金南天, 모던文藝辭典, 『人文評論』, 1940. 1.
- 金霽觀, 社會問題와 中心思想, 『新生活』, 1922. 7.
- 金八峯, 피투성이 된 푸로魂의 表白, 『開闢』, 1925. 2.
- _____, 文壇 最近의 一傾向, 『開闢』, 1925. 7.
- _____, 十年間 朝鮮文藝 變遷過程, 『朝鮮日報』, 1929. 1. 1. ~2. 2.
- _____, 나의 回顧錄, 『世代』, 1964. 7~1966. 1.
- _____, 20년대의 문인들, 『東亞日報』, 1968. 6. 8~6. 29.
- _____, 文壇交流記, 『大韓日報』, 1969. 6. 12~7. 3.
- 朴英熙, 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的 地位, 『開闢』, 1925. 12.
- _____, 新傾向派의 文學과 無産派의 文學, 『朝鮮之光』, 1927. 2.
- 廉想涉,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開闢』, 1925. 2.
- 任鼎宰, 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 『開闢』, 1923. 9.
- 林 和, 朝鮮新文學史論 序說, 『朝鮮中央日報』, 1935. 10. 7~1935. 11. 13.
- _____, 小說文學의 二十年, 『東亞日報』, 1940. 4. 12~1940. 4. 20.
- _____, 文學의 論理, 學藝社, 1940.
- 曹南鉉, 韓國現代文學의 磁界, 평민사, 1985.
- 洪廷善 편, 八峯文學全集 II, 문학과지성사, 1988.
-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 총서 I, II, 태학사, 1989.
- Jaeggi, Urs, Literatur und Politik, Suhrkamp Verlag, 1972.
- Lukács, Georg, Essays on Realism, ed. by Rodney Livingstone, trans by David Fernbach, M.I.T Press, 1971.

The Distance between ‘the Tendency’ and ‘the New Trend Group’

Nam-Hyon Cho

‘Tendency’ has lexical meanings such as the inclination, the trend, the current, etc. and also critical meanings as an aesthetic, literary term. The tendency as a technical term was commonly used in the form of ‘tendentious’ or ‘tendentiousness’.

The word ‘tendency’ appeared first in Kim Chai-kwan’s article(1922) and the term ‘tendency art’ was seen first in Im Chung-jai’s critical essay titled “A piece of writing given to the men of letters” (1923).

‘New trend group’ was a word ingeniously combining the meaning as a literary current and the meaning as socialistic tendentiousness. In my opinion, the former meaning was stronger than the latter. Kim Pal-bong and Im Wha were representative theorists who confirmed the fact that the term and the contents of ‘new trend group’ originated with Pak Young-hi. But, afterwards Kim Pal-bong maintained that he was the originator.

Im Wha raised the status of ‘the new trend group’ while Pak Young-hi interpreted ‘the new trend group’ as the preliminary period literature. Kim Pal-bong was behind Pak 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endentiousness. Kim Nam-chon discriminated ‘the new trend group literature’ from the tendency literature. Im Wha was in the same position as Kim Nam-chon, but he could not define the area of tendency literature.

In case that ‘the new trend group literature’ were understood as the preliminary stage, this title would be unnecessary. Instead, the expression like the first period of tendency literature would be more proper. In case that the range of tendency literature were strictly cut down, the tendency literature could be placed either in front of or behind proletariat literature.